



수입약재 값 폭등 국산 약재 하락세

국산생약 수출활로 모색 기대

계절은 어느새 입춘을 넘어서고 있지만 꿩꿩 얻어붙은 생약업계 경기는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위기속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는 수요감소로 인한 국산 약재 시세하락과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약재 값 폭등현상을 제 공함으로써 지금까지 '값싼수입 국산고가'라는 인식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약재 값 폭등현상은 환율불안정이 해소됨과 동시에 다시금 회복될 다소 일시적 현상이라고 전망하는 측도 있으나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위기속의 우리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2~3년은 소요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세가 하락세인 국산약재는 상대적으로 수입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기회로 또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생산원이 절감과 고품질화를 통해 그동안 주춤해 왔던 생약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물량이 귀한 고본, 건강, 황금, 연교, 전호, 시호등 몇몇 품목들이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산약재 시세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임으로서 수입약재와 가격차가 대폭 줄어든것.

인진이나 쑥 등 풀잎약재들의 경우는 오히려 수입산이 국산보다 비싸다. 국산인진이 근당(6백g 기준) 8백~8백50원선 인데 비해 수입은 근당(6백g 기준) 9백~1천원 선, 쑥도 국산이 근당 4,5백원에 거래되는데 비해 수입은 근당 6백원 수준이다.

최근 환율인상 영향으로 상승세인 수입약재시세의 가격변동폭과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

산약재와의 시세차이는 어느정도 인지 몇개 품목을 중심으로 알아 보자.

길경 수입길경은 근당(6백g)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상승세, 국내산은 산지에서 근당 7천~7천5백원(통선)이지만 울 생산량이 많지 않아 물량 구하기도 쉽지 않다. 길경은 나물인 도라지로도 소비되는데 수입산은 삶으면 쉽게 무르고 맛도 떨어지는데 비해 국산 도라지는 맛 향기가 뛰어나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있는 경쟁력있는 품목중의 하나다.

g 기준) 도매시세는 2천6백원 선으로 지난 12월 시세보다 1천원 폭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조금더 오를때를 기다리느라 물량보유자들이 고품질 약재는 내놓지 않고 있어 상품은 시중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산지인의 귀뜸.

시호 국산시호 산지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1만3천원 선. 수입시호는 5천5백원에서 1천5백원 오른 근당 7천원 선에 유통되고 있다.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품질 뛰어나지만 국내산 생산량이 부족해 물량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국산시호 시세도 상보합세 유지될 전망이다.

황기 국산 1년근 소황기시세가 바닥세다. 지난12월말 기준 근당 5천원 선을 유지하던 1년근 황기 산지시세가 최근 근당 4천~4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재고량이 워낙 많은데다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산이 시중유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수입황기 시세는 환율인상으로 다소 올라 국산 시세와 비슷한 4천5백원 선이라고.

백출 산지에서 근당(6백g 기준) 8천~9천원 까지 다양. 지난 12월 시세인 9천~1만원선 보다 1천원 폭으로 내렸다. 수입산은 근당(6백g 기준) 3천원 선이던 것이 4천원 선으로 상승세.

소엽 현재 거래되고 있는 소엽 근당(6백g 기준) 산지시세는 1천7,8백원 선. 이에 반해 수입산은 지난 11월 기준 근당 1천5백원 선이던 것이 환율인상 이후 근당 2천원 선으로 폭등, 국산보다 오히려 값이 비싸다.

일천궁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산 일천궁 근당(6백

<문정희>

수입·국산약재 시세비교

품목	수입		국산 (월산지시세)	품목	수입		국산 (월산지시세)
	IMF이전	IMF이후			IMF이전	IMF이후	
갈길	600	1,000	1,500	지 모	2,000	3,000	3,000
길경	2,500	4,000	8,000	차 전 자	2,500	4,500	6,000
명 단	500	700	1,300	패 모	2,000	2,800	-
목 단	4,500	5,000	7,500	황 인	1,600	3,800	-
반 하	5,000	6,000	13,000	정	1,500	1,800	6,500
백 출	3,000	4,000	8,500	산 조	2,500	4,000	-
복 령	1,500	2,500	8,500	안 인	3,500	4,000	-
약 약	2,000	2,300	4,500	용 사	7,000	9,000	-
산 호	5,500	7,000	13,000	영 공	2,000	2,500	2,500
시 호	650	1,000	850	황 기	3,500	4,500	4,500
인 전	2,500	4,000	15,000	소 열	1,500	2,000	1,800
오 자	650	1,500	17,000	홍 화	3,000	8,000	-
음 양	600	1,000	800	중 용	6,000	10,000	-
진 과	850	1,800	8,000	계 폐	2,000	2,600	-
지 황	6,000	7,000	9,000	감 초	2,500	4,200	-

시장안팎

거리한산
공휴일인듯

소량구입경향
주문량 50% 감소

환율인상으로 값이 오른 수입약재는 환율 안정되면 가격도 더 내릴것을 기대하여 수요 주춤한 상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산약재는 그것대로 조금 있으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관망하느라 거래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래저래 경기는 썰렁하다. 북적이던 약전골목들이 공휴일인듯 한산하기만. 이대로라면 경동약령시장 업소들의 30% 이상이 문 닫아야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한의원이나 한약방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도 뜸해져 평균 50%는 감소했다. 이처럼 수요가 없으니 이들 업체들의 약재 주문량도 이전과는 달리 극히 소량만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쓰고 있는 실정. 예년처럼 산지와 도매업소들간의 대량거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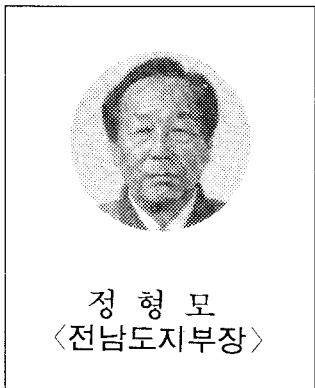
황선기 <황도물산대표 본협회장/약가조사정위원회 위원>

□ IMF 살아남기 제안

삼도시호를 재배해야 하는 이유

삼도시호는 지난 92년까지만 해도 국내 소비되고도 남아 일본으로 수출까지 해 연 12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농가소득품목이다. 그러나 일본 현지사정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 생산 기반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150여t 씩을 매년 수입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166t의 시호를 수입해 오기 위해 16억2천여만원의 달러를 소비했다.

우리것은 어찌됐건 지켜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삼도시호 종자만큼은 겨우 보존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료로 종자를 공급해 준다 해도 누구하나 재배하려는 농민이 없는 실정이다. 값싼 수입산에 밀려 판로도 확실치 않은데다 판매하더라도



수입산과의 시세차액 때문에 제 값을 받을 수 없고 생산원가도 건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국산시호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산기반이 없으니 물량이 귀해 필요한 양을 다 공급할 수 없고 또 부족한 만큼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비싼 달

러를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입약재 시세가 오르고 나라경제가 어려워 달러를 아껴야 할 시점에서는 삼도시호처럼 경쟁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발굴해 농민과 하한가 계약재배를 통해서라도 생산기반을 마련해 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 농민 스스로도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멀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것을 지켜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계약재배를 하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올부터 삼도시호 계약재배를 시도할 생각이다.

삼도시호는 남해안 지역이 재배적지이며 kg당(건근) 1만5, 6천원 선에서 하한가 계약재배를

한다면 평년작일 경우 두평당 한근(6백g 기준 건근)씩 계산했을 때 평당 4, 5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수 있어 농가 차원에서 도도작보다는 채산성이 있다.

최근 시중에는 수입 삼도시호가 국산으로 둔갑 1만3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국산 삼도시호를 kg당 1만5, 6천원에 구매하면 근당(6백g 기준) 1만원 선이니 수입산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 국내산 삼도시호는 수입산에 비해 육이 많고 품질이 우수해 기술집약적인 농법으로 생산원가가 절감과 고품질화를 이룬다면 충분히 경쟁가능성이 있고 국내 수요량만 충족한다 해도 판로는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으리라 본다.

종자대는 부담가지 않은 선에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삼도시호 국내 자급기반이 마련되고 그로인해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0694-857-5455)